

빅스, 11년 히로애락... “셋도 견고해”

4년2개월 공백기 끝 새 앨범
‘콘셉트돌’ 벗고 무게감 살려
리더 엔, 개인 스케줄로 불참
“셋이서 그 이상 채울 수 있어”



처음 빅스(VIXX)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왔을 때 여섯이었던 이들은 11년이 지나 넷이 됐다. 멤버 탈퇴와 소속사 이적, 개별 활동, 군 복무 등으로 뿔뿔이 흩어진 지도 4년. 돌고 돌아 다시 빅스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견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위해서다.

빅스는 21일 미니 5집 ‘컨티뉴엄(CONTINUUM)’으로 컴백한다. 데뷔 10주년을 맞아 지난 1월 싱글 ‘고나 비 얼라잇(Gonna Be Alright)’을 발표했지만, 정식 활동 앨범은 4년2개월 만이다. 레오와 켄, 혁 3명이 발표하는 첫 앨범이기도 하다. 리더 엔(차현연)은 예정된 드라마 촬영 등 스케줄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했다.

레오는 “우리가 생각할 때 4년2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기에 이때 앨범을 꼭 내야겠다는 생각이었다”며 팬들을 먼저 생각했다. 그러면서 “엔은 이미 하기로 한 작품들이 있어서 같이 못하게 됐는데 본인도 너무 하고 싶어 했다. 타이밍이 잘 안 맞았다”고 아쉬워했다.

일부 팬 사이에서는 서운한 기색도 있었다. 오랜 시간 리더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엔도 그런 마음을 읽고 자필 편지로 “실망감을 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어쨌든 저를 빅스의 만행으로 인정해 주고 함께 고민

해 주는 세 멤버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미안하다. 어느덧 30대가 됐지만 제 뿌리가 빅스라는 걸 잊지 않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엔이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멤버들에게는 크게 부담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해요. 누군가는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엔을 더 예뻐해주셨으면 해요. 우리에게겐 친구고 형이기에 때문에 스스로가 더 많이 아쉬울 거예요.”(레오)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모두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빅스는 연결돼 있다. 연속체라는 의미의 앨범 ‘컨티뉴엄’에 그런 메시지를 담았다. 이들은 홀로 있는 순간에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이는 곧 팀의 끊임없는 발전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레오는 “진취적인 욕구로 배우고자 하는 멤버들이 있다. 막내 혁을 보고 놀랐는데, 이제 후련구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잘 한다”며 “어느 순간 멤버의 부족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몫집이 커져 있어서 내가 아니어도 너가 보여줄 수 있구나로 바뀌었다”고 했다.

멤버들의 성장과 강해진 개성은 타이틀곡 ‘암네시아(Amesia)’에서 느낄 수 있다. 세 멤버의 몽환적인 보컬이 돋보이는 알앤비(R&B) 기반의 미디엄 템포 곡이다. ‘왜곡된 기억 속에서도 우리는 결국 서로를 끌어당

긴다는 가사는 빅스의 상황을 대변한다. ‘콘셉트돌’이라고 불릴 만큼 독보적인 팀 색깔을 보여준 것에서는 조금 벗어났다.

“콘셉트돌’에 대한 의무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상징적인 무언가를 녹이고 싶었던 건 없었어요. K팝이라는 장르가 콘셉트를 수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됐잖아요. 우리가 다시 트렌드를 쫓아가는 건 진취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빅스만의 아이덴티티와 무게감, 다크함을 가져가되 멤버들의 배우적인 모먼트를 살리려고 했죠. 시네마틱하면서 뉴아르적인 걸 뮤직비디오에 녹였어요.”(혁)

강점인 퍼포먼스는 심분 살렸다. 멤버들의 피지컬을 활용한 안무로 남성성을 강조했다. 안무팀 프리마인드와 워엠보이즈 바타가 공동 작업했다. 멤버들은 “퍼포먼스 난도가 높다”고 입을 모았다. “직면했던 문제 중 하나가 빅스라는 타이틀과 이름의 무게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였어요. 이번 안무는 저희가 잘 하지 않았던 요소가 많아서 연습량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영상으로 봤을 때 ‘좋은데?’라고 했죠.”(레오)

공백기 동안 달라진 가요계 문화도 체험하게 됐다. 혁은 “챗린지를 소문으로만 들었다. 우리가 소문 속에 들어가서 직면해야 하는데 ‘당일에 배워서 어떻게 해야하냐고 걱정했다’면서도 ‘선후배 분들과 상황 속에서 즐기려고 한다. 전투적이고 마음이 열려 있다’고 했다. 이어 “켄 형은 예능에 욕심도 많다. 우리가 신문물에 적응을 못하는 느낌인데 요즘은 유튜브 콘텐츠가 활성화되지 않았나”라며 “빅스의 다양한 모습을 기대하는 분들에게 추억을 선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내달 9~10일에는 서울 잠정체육관에서 단독 콘서트도 연다. 오랜만의 공연이지만 양일 전석 매진됐다. “우리도 사람인지만 부담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에요. 오래 기다려준 만큼 관심 가져주고 뛰어놀고 싶어 하는 팬들의 마음이 우리를 좀 더 설레게 해요. 가수가 잊지 못하는 순간은 역시 무대예요. 누군가는 걱정할 수도 있어요. ‘세 명이서 어떻게 채울까’라고요. 우리는 충분히 잘 할 수 있고, 그 이상을 채울 수 있어요.”(레오)

여러모로 녹록지 않은 과정이지만 팀워크는 더 단단해졌다. 연습생 기간을 거쳐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이들은 형제가 됐고, 서로의 마음까지 읽고 있다. “팀 활동이라는 게 앨범만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공연부터 다양한 일정을 개개인이 포기해야 해요. 다른 멤버들도 팀에 대한 의지나 활동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걸 보고 끈근함을 느꼈어요. 가장 좋았을 때도 함께였지만 가장 슬프고 힘들었던 20대도 함께 보낸 사람들이예요.”(혁)

빅스는 또 한 번 공백기를 맞이하게 된다. 혁이 아직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앨범이 앞으로 빅스의 방향성을 정하는 징검다리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 “마냥 성과를 중시할 수 없지만, 차츰차츰 쌓아가는 것들이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장르와 활동을 할지 여러 방안을 놓고 봤을 때 새로운 출발 기로에 선 느낌이에요.”(혁)

“팬들은 4년 동안 컴백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언제 나올까 고민했을 거예요. 진심으로 위로해 주고 사랑해 주는 팬들을 보면서 항상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좋은 모습으로 보지’는 말을 했었거든요. 정말 많이 보고싶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켄)



RM·지민·뷔·정국, 군 입대 절차 돌입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제이홉·슈가(민윤기)가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가운데 다른 네 멤버들이 군 입대를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22일 글로벌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RM, 지민, 뷔(V), 정국이 병역 의무 이행을 준비 중이다. 군 입대 관련 후속 소식은 추후 전해지는 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RM, 지민, 뷔, 정국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건강하게 복귀하는 날까지 따뜻한 응

원과 변함 없는 사랑 부탁드립니다. 당사도 아티스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애정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과 제이홉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각각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조교로 복무하고 있다. 슈가는 지난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 복무 중이다.

방탄소년단, 빅히트 뮤직과 모회사 하이브는 2025년부터 멤버들의 단체 활동 재개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일찌감치 일곱 멤버들과 두 번째 재계약했다.

‘사생활 유출’ 라이즈 승한, 무기한 활동 중단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그룹 ‘라이즈’ 승한(20)이 결국 활동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22일 “이날부터 승한을 제외한 6명의 멤버로 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승한은 최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습생 시절 시작으로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유출됐다. SM은 “승한은 사생활 관련 이슈로 인해 팀과 멤버들은 물론, 팬 여러분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승한은 심적 부담과 책임감을 느껴, 깊은 고민 끝에 팀을 위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했다. “당사는 데뷔 전일지라도 아티스

트 관리에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과를 덧붙였다.

영상과 사진 무단 유출 및 유포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데뷔 전 연습생 시절 사적인 시간에 촬영된 것으로, 출처가 특정되는 영상을 사용해 화면 캡처를 하는 등 의도적인 2차 편집을 통해 오해를 유발하도록 여러 차례 재생산된 것”이라며 “존재하지 않는 대신 저 대화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생성하는 악의적인 수법까지 동원해 사실과는 다른, 날조되고 왜곡된 정보를 퍼뜨려 아티스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한 즉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상당량의 증거 자료를 수집해 무단 유출 및 유포자를 특정했고, 이날 오후 관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추가 게시글을 통해 아티스트와 관련된 무분별한 루머를 생성 및 유포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등 모든 2차적인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라이즈는 SM이 그룹 ‘에스파’ 이후 3년 만에 내놓은 신인이다. 그룹 ‘NCT’ 이후 7년 만에 론칭한 보이 그룹이다. 싱어송라이터 윤상의 아들 엔톤을 비롯한 타로·은석·성찬·원빈·승한·소희 7인으로 구성됐다. 지난 9월 발매한 데뷔 싱글 ‘겟 어 기타(Get A Guitar)’로 밀리언 셀러에 등극했다. 마지막 활동은 10월에 발표한 싱글 ‘토크 섹시(Talk Sexy)’다.

비아이, 유럽 16개 도시 투어 성료

그룹 아이콘(KON) 출신 래퍼 비아이(B.I)가 유럽 투어를 성료했다.

21일 소속사 131레이블에 따르면, 비아이는 지난 9~10월 유럽 16개 도시에서 첫 유럽 투어 ‘러브 오어 다이’(LOVE OR DIE)를 성황리에 마쳤다.

‘러브 오어 다이’는 9월19일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를 시작으로 21일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23일 프랑스 파리, 2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27일 스위스 취리히, 28일 이탈리아 밀라노, 30일 폴란드 바르샤바, 10월3일 에스토니아 탈린, 5일 핀란드 헬싱키, 7일 스웨덴 스톡홀름, 8일 노르웨이 오슬로, 11일 독일 함부르크, 14일 독일 쾰른, 15일 영국 런던, 18일 벨기에 브뤼셀, 19일 독일 뮌헨에서 진행됐다.

총 16개 도시 가운데 14개 도시 공연이 조기에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또 유럽 투어 직전에는 국내 아티스트 최초로 독일에서 열린 ‘2023 톨라팔루자 베를린 페스티벌’ 헤드라이너로



참여하며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이번 투어에서 비아이는 지난 6월 발매한 정규 2집 ‘투 다이 포’(TO DIE FOR), 지난 10월 발매한 ‘러브 오어 러브드’(Love or Loved) Part.2 앨범 신곡을 비롯해 다양한 세트리스트를 마련했다.

비아이는 국내외에서 음악 및 공연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태리 “외계+인 2부 류준열과 더 애뜻한 관계 돼”



배우 김태리가 새 영화 ‘외계+인 2부’에서 자신이 연기한 ‘이안’과 류준열이 맡은 ‘무룩’이 동지를 넘어선 관계가 된다고 했다.

김태리는 22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외계+인 2부’ 제작보고회에서 “1부에서는 무룩과 가짜 혼인을 하고 티격태격 하는 케미스트리를 발전했다면, 2부에서는 신감을 쫓는 과정에서 비밀이 밝혀지고 저희 사이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룩과 같은 뜻과 목적을 가진 동지가 된다. 동지보다 조금 더 애뜻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안은 세계를 구하기 위해 고려 시대에서 미래로 가려는 인물이고, 무룩은 자기 정체에 의심을 품고 미래로 향하게 된다.

‘외계+인’은 2부작으로 기획된 시리즈 영화

로 현재와 630년 전 고려 시대를 오가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신검(神劍)을 차지하기 위해 과거와 미래 인물들이 한 데 모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다만 1부는 153만명이 보는 데 그치며 흥행에 실패했다. 이 작품 제작비는 약 700억원으로 알려졌다.

‘암살’(2015) ‘도둑들’(2012) 등으로 두 편의 1000만 영화를 만든 최동훈 감독이 연출했다. 김우빈·김태리·류준열·염정아·조우진·김의성·이하니 등이 출연했고, 2부에선 1부에 등장하지 않은 전진규도 합류하게 된다. 내년 1월 개봉한다.